

베른-칼스루헤 연합수양회 감사 보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기간: 2026 년 9 월 11 일(금)-13 일(주일)

장소: 독일 Lörrach DJH 유스호스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베른과 칼스루헤 연합수양회를 말씀과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며

이번 수양회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작은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수양회의 형식을 따르기보다, 20 명 안팎의 작은 규모를 염두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과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장이 더디게 느껴지는 지체들과 저희 동역자들이 복음을 새롭게 만나고, 이번 만남이 믿음의 성장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언어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분도, 아직 신앙을 배우는 청년도, 미리 긴 소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마음에 남은 말씀과 은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하고, 말씀강의와 인생소감, ‘한 말씀, 한 문장’ 카드와 짝 나눔, 은혜마이크, 찬양과 기도, 마지막 날 소감과 결단의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양회 약 석 달 전부터 두 지부가 줌으로 만나 말씀의 방향과 강사, 인생소감 발표자,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여름휴가와 학생들의 시험 준비, 직장 and 가정의 책임, 다른 여름 수양회 일정이 겹쳐 준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간을 맞추어 꾸준히 만나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동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만남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베른과 칼스루헤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스위스 독일어권 대학들과 장차 취리히 캠퍼스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직 작고 부족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된 동역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2. 금요일 저녁 — 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시작된 첫날 저녁, 베른의 시빌레 그레이스 자매가 고린도전서 1:18-31 을 본문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조건과 성취를 자랑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시빌레 자매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진솔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인도하셨으며, 먼저 믿음을 가진 자매의 사랑과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특히 바젤대학교에서 매주 성경 말씀을 나누며 때로 거절과 조롱을 받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고백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귀한 대화가 열리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일을 나누며, 이 섬김이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완전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른의 에스더 지혜 2 세 선교사가 인생소감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0 을 붙들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던 삶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매이고 여러 어려움으로 기쁨을 잃어 가면서도, 자신의 노력과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얻으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공부와 기도로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깨닫고 “저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한순간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졌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소망이 있는 기쁨을 되찾았으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됨을 알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모임 후에는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별이 보이는 하늘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못별을 보여 주시며 후손을 약속하신 창세기 15:5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눈앞의 작은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시간이었습니다.

3. 토요일 오전 — 십자가의 용서를 나의 은혜로 받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함께 누가복음 23 장을 그룹성경공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데 머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칼스루헤의 토비아스 목자가 누가복음 23:26-49 를 본문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은혜를 구한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이미 이루어 놓은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숨게 만드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소감에서는 칼스루헤에서 공부하던 시절, 성실함과 의지로 삶을 이끌려 했으나 인생의 의미를 잃고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던 때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공부와 2002 년 여름수양회, 이후 붙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도 자신의 희생과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다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일상 속 자신의 사랑 없음을 새롭게 돌아보며, 지금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뒤이어 칼스루에 대학생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인생소감을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자라 독일로 오고, 이후 칼스루헤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온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적과 성취,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 자매의 소감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시험과 미래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시험 결과나 성취에 달려 있지 않음을 배우며 주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기보다 회개하며 돌아가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사랑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일상의 관계와 선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모임 후에는 함께 바비큐 식사를 나누고 운동과 산책, 교제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눈 마음이 식탁과 산책길의 대화로 이어지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편안히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4. 토요일 저녁 — 십자가에서 만난 사랑과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

저녁에는 칼스루헤 응용과학대학 교수인 안드레아스가 십자가에 관한 특강을 전했습니다. 그는 창조에서 받은 생명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새 생명을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목의 길을 여신 사랑의 사건임을 전했습니다.

특강 끝에는 그 사랑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십자가가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의 동행을 통해 자신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셨다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거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스스로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받을 수 있다는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도움받은 것처럼 대학생들도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고 싶다는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베른의 마리안느 블레싱 목자가 고린도후서 5:14-21 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힘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화목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안느 목자는 지난날의 상처로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자신이 2007 년 서마리아 선교사님의 초청을 통해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온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물질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배우게 되었고, 캠퍼스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도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게 된 변화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일 자리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기관의 일로 인도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현재 비엘의 대학생들에게 성경 말씀과 성경책을 나누고 있다는 고백은,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말씀과 증언을 들은 뒤에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사와 회개,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불드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함께 구했습니다. 기도 후 은혜마이크 시간에는 자원하는 참석자들이 마음에 남은 말씀과 은혜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잘 정리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받은 말씀을 자기 말로 고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했습니다.

5. 주일 오전 —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제자의 길로

마지막 날 오전에는 칼스루헤의 요셉 2 세 선교사가 마가복음 8:34-38 을 본문으로 ‘제자의 길’을 전했습니다. 자기부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름으로 감당하게 되는 대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새롭게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제자의 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의 결심이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20 말씀과 함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했습니다.

요셉 2 세 선교사는 자신의 삶에서도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매여 있었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이 약해졌던 모습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21 장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났고, 이번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계획과 미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준비한 과정 자체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매 강의 후 진행한 ‘한 말씀, 한 문장’ 기록과 나눔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곧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보다, 마음에 남은 말씀과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고 짝과 나누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한 나눔이 반복되면서, 말씀을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수양회 전 자신의 상태, 가장 마음에 남은 말씀과 받은 은혜, 수양회 후 붙들 한 가지 결단을 정리했습니다. 각 그룹에서 소감을 나누고, 대표 몇 분이 전체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습관과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을 구하는 마음, 믿음에 해가 되는 관계를 정리하려는 결단,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백을 변화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증거로 여기기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결단이 일상 속에서 자라도록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동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받은 은혜를 수양회장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캠퍼스와 공동체로 가져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모임을 마쳤습니다.

6. 기도와 조용한 섬김으로 함께 이루어 주신 공동체

이번 수양회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크넷 목자가 함께하여 기도와 교제로 저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시니어 선교사로 바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는 프라이부르크의 노아 유·드보라 유 선교사님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오신 동역자님들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뒤에서 묵묵히 필요한 일을 감당해 주신 서여호수아 선교사님, 여러 준비와 현장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 주신 서마리아 선교사님, 여러 달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에스더 김 선교사님과 모든 섬김자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소감, 찬양과 반주, 사회와 대표기도, 자료와 기술 지원, 차량과 숙소, 식사와 다과 등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의 섬김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시험 준비와 직장, 가정의 바쁜 책임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하고 섬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에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수양회가 아니라, 각 사람의 작은 섬김과 멀리서 드러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 후에는 바젤 시내를 함께 둘러보고 강에서 배를 타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나누며 함께한 시간도 감사했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서로의 삶을 듣고 기뻐하는 교제가 이어지면서, 두 지부가 앞으로도 사랑과 기도로 연결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7.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캠퍼스를 향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번 수양회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것은, 작고 연약한 저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서로를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강의 제목으로만 남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과 용서의 은혜, 주님께 삶을 맡기려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 은혜의 흔적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이 수양회가 베른과 칼스루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스위스 독일어권 캠퍼스 복음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젤과 비엘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베른과 칼스루헤에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연결되며, 장차 바젤과 빌과 취리히를 비롯한 캠퍼스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공부와 기도로 꾸준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과 결단이 한때의 감동에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자라도록, 두 지부가 지혜와 사랑의 동역을 이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제자의 길을 배워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는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베른-칼스루헤 연합수양회 동역자들을 대표하여

김제임스 드림